

2014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마치고

■ 일 시 : 2014년 4월 9일(수)~11일(금)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대전 DCC)

2014년 한국고분자학회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4월 9~11일, 사흘에 걸쳐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춘계학회는 2,200여 명의 인원이 등록한 가운데, 논문 발표 편수도 초청강연 106편, 구두발표 72편, 포스터발표 947편 등, 총 1,127편에 이르렀습니다. 매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국고분자학회의 모습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회장에서는 영어 발표를 처음 시도함으로써 국제적인 학회로 도약하고자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상암고분자상 수상기념강연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오욱 교수께서 “진화하는 것들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재석 교수께서 “Small Synthetic Progress in Living Polyisocyanates toward Artificial Helical Models Opened an Emerging Field of Polymer Chemistry”라는 제목으로 LG화학 고분자학술상 수상기념강연을 하셨습니다.

10일 오전에 열린 총회에서 삼성고분자학술상을 김은경 교수(연세대학교),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을 박찬언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중견학술상을 이준엽 교수(단국대학교), 이상천 교수(경희대학교), 신진학술상을 정연식 교수(KAIST), 김병수 교수(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술상을 양세우 박사(LG화학 기술연구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또, 정재웅 박사(서울대학교)에 대한 우수박사학위논문상과 정경화(이화여자대학교), 진영재(경북대학교), 그리고 하예은(부경대학교)에 대한 우수석사학위논문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고분자 연구논문발표회 학술프로그램은 둘째 날 분자전자 부문위원회, 고분자가공/복합재료-미래 자동차용 고분자 소재 최신기술 동향, 에너지 응용 유연소재 및 소자기술, Biomedical Polymer Division, Korea-Japan Joint Symposium: Assembly Technology in Polymer Science, 고분자구조 및 물성, 고분자합성 및 대학원생구두발표(I)의 8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셋째 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Functional Colloids for Dermatology, 지속가능형 고분자 멤브레인, 휴먼인터페이스 의료용 고분자재료, 기능성고분자, Young Polymer Scientists Session, Graduate Student Oral Session 및 , 대학원생구두발표(II)의 8개로 총 16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Korea-Japan Joint Symposium을 위하여 일본에서 Masa-aki Morikawa, Yoshinori Takashima, Shoichi Kubo, 그리고 Mitsuo Hara 박사께서 참석하여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양일간에 걸쳐 각 회장에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발표와 심층 토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느 국제학술대회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발표로 한국고분자학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6개의 주제 중 Biomedical Polymer Division, Korea-Japan Joint Symposium: Assembly Technology in Polymer Science, Young Polymer Scientists Session 및 Graduate Student Oral Session은 영어 발표로 진행되어 국제적인 학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0년 춘계학회부터 시도된 대학원생 구두발표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열기로 잘 진행되어 미래의 주역인 대학원생들에게 무척 고무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판단됩니다.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에는 10일 오전과 11일 오전 및 오후, 총 3회에 걸쳐 94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춘계학회에서도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 논문들 중에서 학술위원회에 의해 사전 및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발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께서 연구창의성, 연구내용 및 발표력 등의 엄격한 평가기준에 근거해 총 51편의 응모 논문 중 8편의 논문을 우수논문발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포스터발표 세션 동안 학생회원들을 위하여 커피와 도넛을 제공하여 학생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총 14편의 포스터 발표 논문이 발표취소 되었으며, 12편이 발표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이 아쉬우며, 학회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5개의 기기전시 부스 및 11개의 기업체 홍보 부스 등 총 36개의 부스가 이번 춘계 학회에 설치·운영되었으며, 전시업체의 요

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최상의 전시부스를 참여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기업체 홍보 부스와 기기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기기전시 및 기업체 홍보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지만, 기기전시 부스의 경우 실 소비자인 정회원님들의 방문이 다소 부진하다는 불만을 보였습니다. 학생회원들만의 이벤트 응모를 위한 기기전시 부스의 방문이 아닌 관심 있는 부스의 방문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학생회원들을 위한 이벤트로 학회 마지막 날인 11일에 약 2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응모한 회원 중 56명의 회원님들이 경품을 수령하는 즐거움을 만끽했고, 이 유쾌한 행사를 끝으로 이번 학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본 학술대회는 단지 경직된 학술대회가 아닌 모든 회원의 참여로 경쾌하고 즐겁게 진행되는 학술축제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부터는 예년의 29명에 대한 경품 추첨에 대한 금액을 증액하여 53명으로 당첨자의 수를 확대하여 53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롯데케미칼에서 아이패드미니레터나 3대를 후원함에 따라 56명에 대한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훌륭한 학술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분자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님들,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신 organizer 분들과 성공적인 세션 진행을 위하여 애써 주신 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부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 기업 및 기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수영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 여러분과, 학술대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안동준 전무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을 담당해 주신 운영이사 여러분과 학회 사무국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학회 등록과 학회장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학생 staff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회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고분자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사 이승우(영남대학교)>

